

Advent 2024

We wish your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One of joyful moments during Advent is to send a message of great joy of the coming of Jesus Christ – Emmanuel, God-with-us. This year, I feel strange a bit with the fact that I do not have a recipient of the message – my parent - father Rev. KookWon Park (1927-2024) and mother, YoonJa Kwark (1933-2024). Traditionally, children in Korea consider sinners when they bereaved their parents by death, particularly when they miss the last moment of death. Doctor pronounced her death with assumption that sometime around the dawn before Maundy Thursday, March 28, her heart bit stopped. Her daily journal dated on March 26 caused us to wonder whether she went to immortality earlier. I understand her life was like that of Enoch: **YoonJa walked with God, and she was not, for God took her** (cf. Gen. 5:24). On Saturday after the Father's day, father died leaving a Christmas message: **"Fear not, for I am with you [emmaqa anie]; be not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Isa. 41:10). A firm right hand of my father hits upon.

אֱלֹהֵינוּ כִּי עִמָּךְ אָנִי אֶל־תִּשְׁתַּע
כִּי־אָנִי אֱלֹהֶיךָ אֲמַצְתִּיךָ
אֶפְעֶזְרְתִּיךָ אֶפְתַּמְכֶתִיךָ בִּימִין
צִדְקִי:

Thank you for your condolences, along with the words of encouragement, flowers, and monetary gifts toward a memorial garden at east of a garden of Eden tilled at 35-5 OchonHwaCheon-gil, South Korea by mom and dad since their retirement from the ordained ministry in 1998.

We are well.

May God of the Most High be with you this joyous Christmas season and New Year!



2024 대강절

즐거운 성탄과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대강절기간 즐거운 순간들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 올

성탄절이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던 주요 대상이었던 아버지 박국원 목사 (1927-2024)와 어머니 곽윤자 사모 (1933-2024)가 아니

계시다는 사실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부모를 여원 자녀를, 특히 임종을 지키지 못한 이들을, 죄인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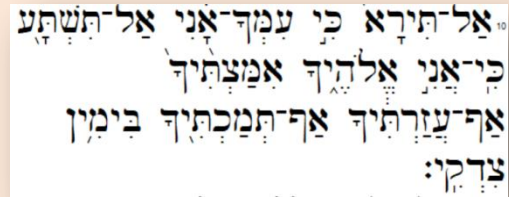
하지요.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어머니는 성목요일 전 새벽, 심정지를 일으켜 돌아가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3 월 26 일자 마지막 일기를 남기신 것으로 볼때, 그 보다 더 이른 때에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삶이 에녹의 삶과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윤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개역개정 창세기 5:24 참조).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날이 지난 토요일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부터 크리스마스 메세지와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 아버지의 강한 오른 손이 생각납니다.

위로의 말씀과 화환등으로 문상해 주시고 조의금을 보내 주셔서, 1998 년 은퇴이후 두 분이 오촌화천길 35-5 에 가꾸어 오신 에덴동산을 기념 동산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의 하나님께서 귀하와 함께 하셔서 기쁨이 충만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Gideon Thory (基潤), Jeremy Solo (基沃), Theodore Atticus (基澤), YoungHoon (永訓), and DaeHwa (大華)

